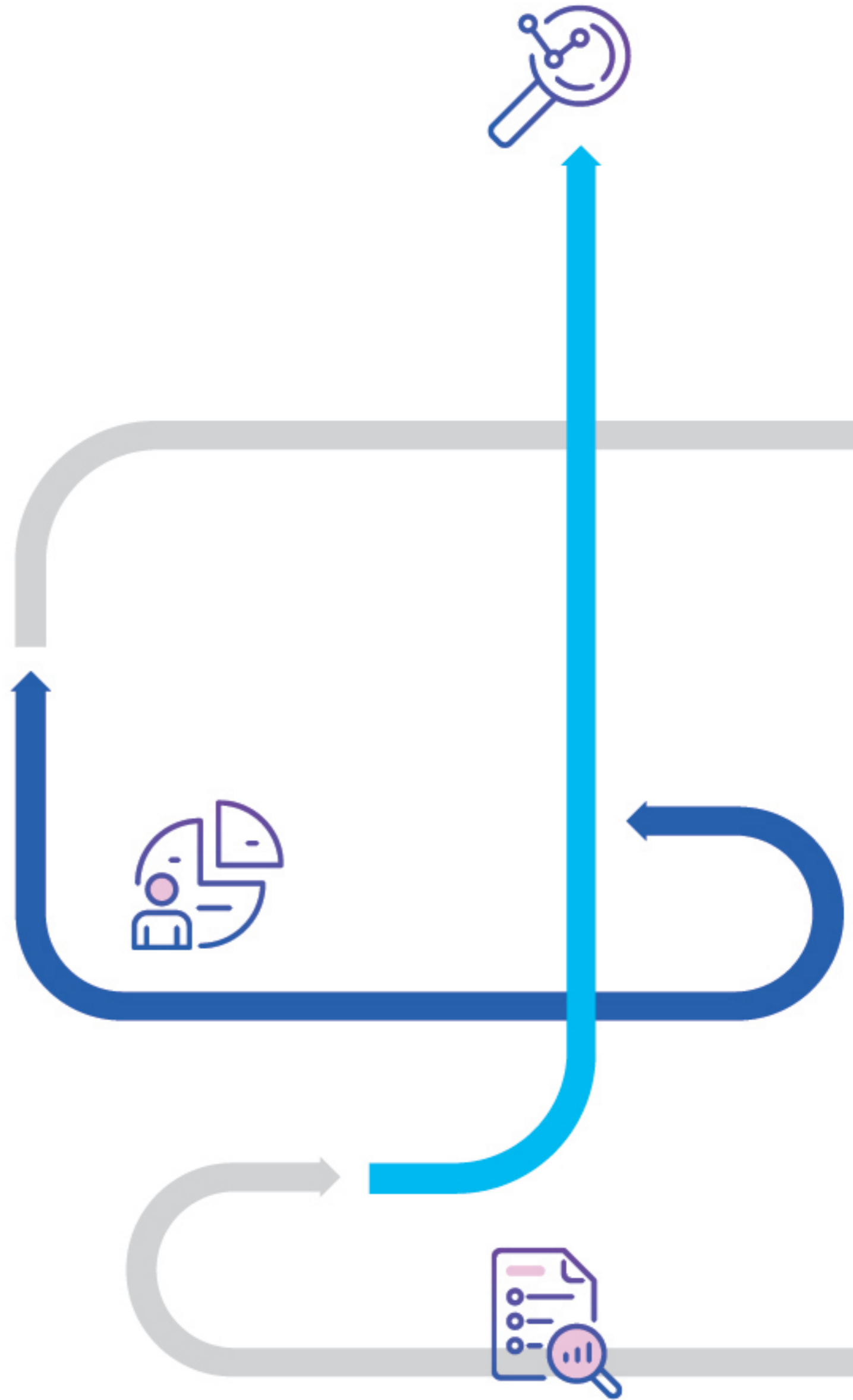


# AGING ISSUE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브리프

Vol. **03**  
2025 October

시민과 함께 그리는 **고령친화도시 인천**





Vol. **03**

2025 October

# AGING ISSUE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브리프

발행일	2025년 10월
발행인	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장 박정숙
발행처	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
제작부서	정책연구팀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10층
홈페이지	<a href="http://www.inlife.or.kr">www.inlife.or.kr</a>
디자인	덕신인쇄



## CONTENTS

### 연구 성과 공유

---

- 04 「인천시 고령친화도시 2기 실행계획(2025~2029)」
- 연구자 권미애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위원
  - 작성자 김제희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원
  - 연구 개요
  - 인천시 고령화 현황
  - 제1기(2022~2024) 실행계획 주요성과
  - 제2기(2025~2029) 실행계획 비전 및 추진체계

### 이슈로 보는 세상

---

- 08 고령친화도시, 세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협력체 국가를  
통해 본 고령친화도시 정책 방향
- 정은하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 인천 시민의 눈으로 본 고령친화도시

---

- 13 인천 고령친화 모니터링단의 기록

# 인천시 고령친화도시 2기 실행계획(2025~2029)

연구자 권미애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위원  
작성자 김제희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원

## 개요

인천광역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년기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2년부터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본 연구는 그동안의 1기(2022~2024) 실행계획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2기(2025~2029) 실행계획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1기 평가는 인천광역시 노인정책과와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1기 실행계획의 5대 영역(거주환경, 사회참여, 일자리, 소통·통합, 돌봄·보건)의 13개 세부과제, 70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사업별 추진 실적과 예산 집행 현황,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정량적 성과분석과 중요도 및 만족도(IPA) 분석을 실시하여 인천시의 고령친화도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였다.

2024년 9월 기준 인천의 총인구는 약 302만 명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2만 명(17.4%)으로 나타났다. 2005년 6.9%였던 고령인구 비율이 약 20년 사이 10.5%p 증가하였다.

강화군(38.6%)과 옹진군(33.3%)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독거노인 가구는 전체의 8%에 해당한다. 이처럼 인천은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도시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 고령친화도 진단 결과

고령친화도 진단은 2024년 10월 2일부터 18일까지 인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80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는 성별·연령·자치구를 고려한 비례배분법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방문면접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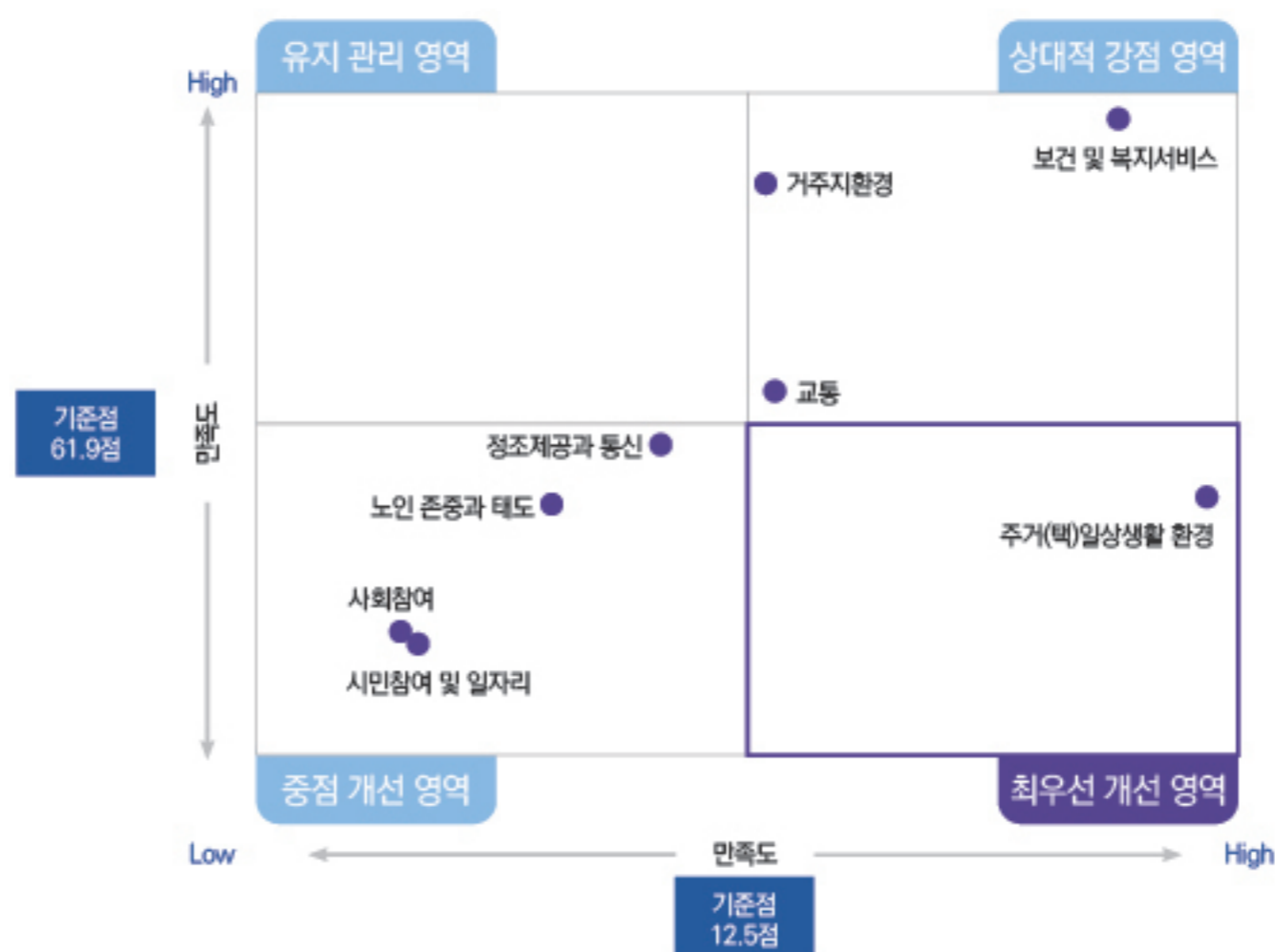
조사 결과, 인천의 고령친화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개선 추세를 보였다. 2018년 이후 꾸준한 정책 추진으로 주거(택) 일상생활 환경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만족도가 상승했으며, 특히 '지역사회 지원 및 보건' 영역은 2018년 59.9점에서 2024년 71.2점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IPA 분석 결과, '주거(택) 및 일상생활 환경'은 개선이 가장 시급한 영역으로 도출되었으며, '보건·복지서비스', '거주환경', '교통'은 상대적 강점으로 평가되었다.

사회참여, 시민참여 및 일자리, 정보제공과 통신, 그리고 노인에 대한 존중과 태도 영역은 모두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노인 일자리의 확대와 사회활동 참여 지원뿐 아니라, 세대 간 존중 문화를 강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PA 분석 결과

구분	만족도(점)	중요도(%)	영역 분류
거주(지) 환경	68.4	13.3	상대적강점
교통	63.0	13.8	상대적강점
주거(택) 일상생활 환경	60.1	29.6	최우선개선
사회참여	56.2	0.5	중점개선
노인에 대한 존중과 태도	59.5	5.3	중점개선
시민참여 및 노인일자리	56.0	1.3	중점개선
정보제공과 통신	61.1	9.4	중점개선
보건 및 복지서비스	71.2	26.9	상대적강점



## 1기(2022~2024) 실행계획 추진성과

인천시 고령친화도시 1기 실행계획은 “살고 싶은 도시, 시민이 함께 만드는 고령친화도시 인천”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영역과 13개 세부과제, 70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3년간 총 1조 8,151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022년 대비 2024년 예산은 약 30% 증가하였다.

평가 결과, 전체 70개 세부사업 중 절반 이상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모든 사업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연차별 계획 수립과 추진 체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주요 성과로는 거주환경 분야에서 검단과 계양 지역에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이 진행 중이며, ‘뉴그린시티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목표를 크게 넘어서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노인일자리 참여 인원이 2022년 약 5만 명에서 2024년 5만 7천 명으로 증가하며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인천시가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참여 및 소통 분야에서는 여가복지시설 이용 인원이 최근 3년간 172% 증가하였으며, 스마트 경로당 100개소 조성과 함께 효드림복지카드 지원사업을 통해 약 4만 2천 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과 보건 분야에서는 인천시립요양원 건립을 비롯해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뇌건강학교 운영 확대, 노인복지시설 인권모니터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현장의 돌봄 인프라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와 같이 인천의 고령친화정책은 거주환경, 일자리, 사회참여,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각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정책의 효과성을 높였으며, 이러한 성과는 인천이 지속가능한 고령사회 정책 기반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시사점 및 제2기(2025~2029)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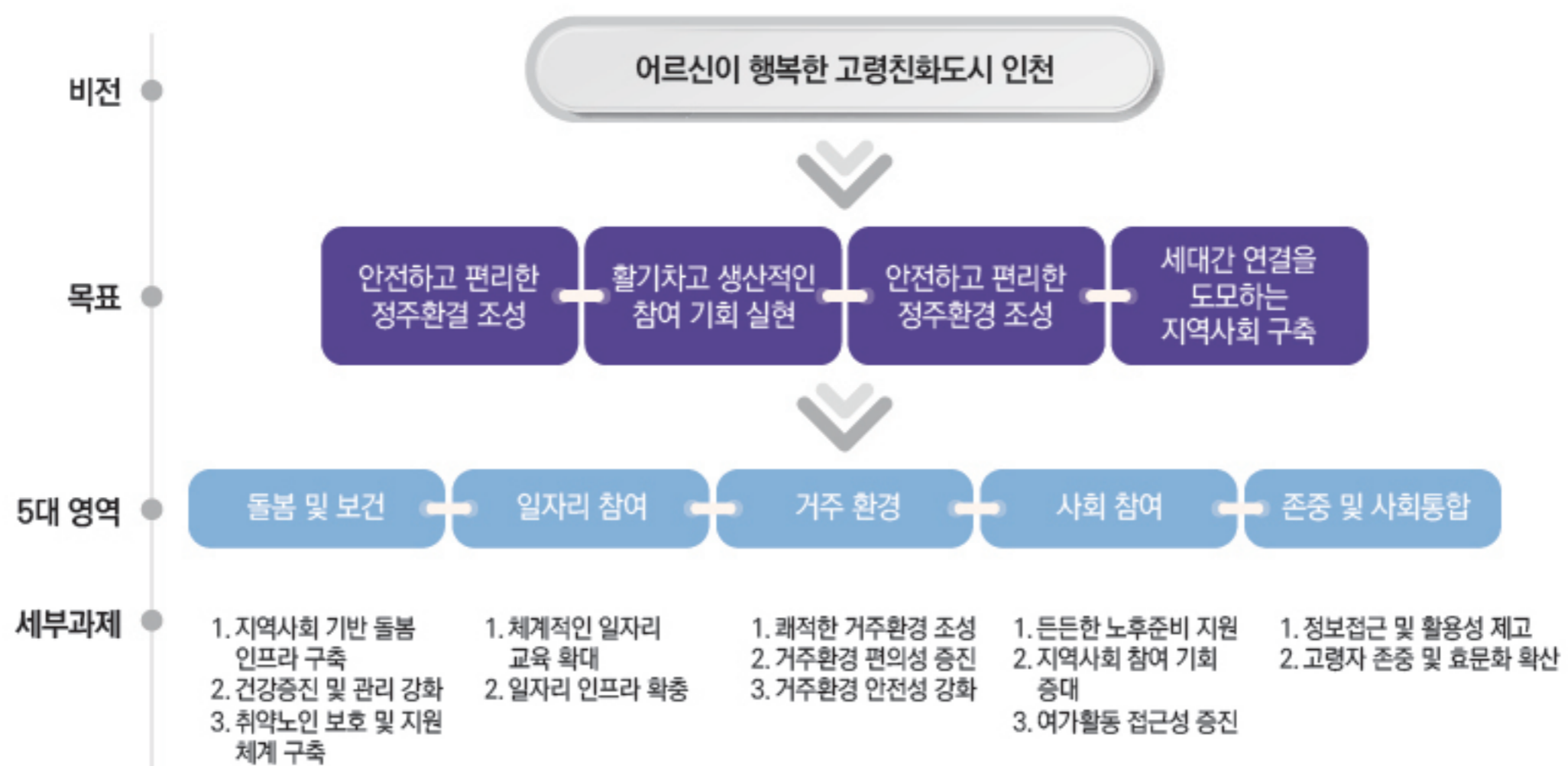
1기 실행계획은 전반적으로 매우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연도별 목표 달성률과 사업 성과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다만 주택·교통·외부공간을 하나의 '거주환경' 영역으로 통합함에 따라 세부 정책의 특수성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사회참여와 일자리 영역 간의 일부 중복성 역시 향후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기 실행계획에서는 분야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세부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특히 사회참여 영역에서는 비경제적 활동(자원봉사 및 공동체 기여 활동 등)과 경제적 활동(일자리 참여)을 구분하여, 노년층의 연령과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수립된 인천광역시 제2기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2025~2029)은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해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 ①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환경 조성
- ② 활기차고 생산적인 참여 기회 실현
- ③ 세대 간 연결을 도모하는 지역사회 구축
- ④ 신뢰로 지속하는 돌봄체계 구축

[그림] 인천광역시 2기 고령친화도시 비전 및 목표



인천시는 이러한 네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5개 영역과 13개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고령화의 심화와 장기화되는 노년기에 따른 사회적 불안과 삶의 질 저하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나이 들에 대한 두려움과 심리·사회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책적 방향과 실행 과제를 구체화하였다.

## 고령친화도시, 세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협력체 국가를 통해 본 고령친화도시 정책 방향

작성자 정은하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 서론 : WHO 고령친화도시 의미와 한계

국제연합(UN)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초고령사회라 지칭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를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sup>1)</sup>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는데, 이 같은 노인 인구 증가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며 우리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 받아들이고, 정책 환경 혁신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이미 예견되어 있던 것으로, UN 산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고령친화도시 가이드(WHO, 2007)<sup>2)</sup> 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왔다. 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살던 곳에서 편안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lobal Network for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이하 GNAFCC)는 2010년 미국 뉴욕시의 첫 회원 가입 이후, 전 세계적인 고령사회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확장세가 지속되어, 2025년 9월 기준으로 회원은 총 1,739개 도시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GNAFCC의 기여는 확실하다. 우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의 기회를 도시 단위에 제공했다. 그리고 8대 영역<sup>3)</sup> 으로 구성된 정책 틀을 통해 고령친화도시의 가치를 확산하고 추진 과제를 명확히 하였다.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은 전통적 노인 복지 영역인 고용, 여가, 돌봄과 관련된 내용은 물론 존중과 사회통합, 정보와 의사소

1) 행정안전부(2024.12.24.), 노인 인구 20.0% 발표,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4063351530>통계청(2025.09.29.), 노인 인구 20.3% 발표, <https://www.nocutnews.co.kr/news/6407362>

2) WHO. (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3) WHO(2007)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물리 환경(① 외부환경과 시설 Outdoor spaces and buildings, ② 주거 Housing, ③ 교통 Transportation), 사회 환경(④ 시민참여와 고용, Civic participation and employment, ⑤ 사회참여와 여가 Social participation, ⑥ 정보와 의사소통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⑦ 존중과 사회통합 Respect and social inclusion, ⑧ 건강과 지역돌봄 Community support and health services)

통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어, 노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다 여러 세대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하는 고령친화도시의 가치를 드러낸다. 또한 외부환경과 시설, 주거, 교통 등 물리적 환경의 과제를 포함하여 노인 정책이 거시적인 도시 계획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GNAFCC는 도시 단위로 추진되어 실행력과 파급력이 높았으며, 이는 회원 도시뿐 아니라 WHO에도 유리한 운영 방식이었다. 하지만 궁극적인 변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 확보와 장기적인 사업의 일관된 추진에 있어서는 도시 단위 지방정부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더욱 안정적인 고령친화 도시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단위에서의 지원과 국가 내 타 도시들과의 협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도시 단위 사업 추진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는 국가 체계 개입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GNAFCC 네트워크 협력체 관련 운영 현황

이러한 맥락에서 WHO는 도시 간 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가 단위의 지원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WHO 고령친화도시 홈페이지<sup>4)</sup> 를 보면 GNAFCC 관련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및 단체에 대해, 현재 ‘네트워크 협력체(Network Affiliates)’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이것을 주체별 유형에 따라 국가(National), 지방정부(Sub-national), 지역(Regional), 국제(International)로 나누고 있다.

국가 협력체에는 아일랜드, 영국,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페인, 포르투갈, 캐나다, 미국, 아르헨티나,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총 12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고, 지방정부 협력체에는 아랍에미리트 1곳, 캐나다 1곳, 멕시코 2곳, 호주 2곳, 일본 1곳 등 총 7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지역 협력체에는 에이지 플랫폼 유럽(AGE Platform Europe)이, 국제 협력체에는 국제노령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n Ageing) 등 4개 비영리단체가 포함된다.

네트워크 협력체는 고령친화적 지식과 실천 역량을 증진시키고 고령친화적 접근을 장려하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WHO가 공식적으로 부여했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협력체는 각 주체가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 속한 도시 및 지역 네트워크를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물론, 이러한 권한 외에는 WHO로부터 협력체에 대한 직접적인 이득이나 경제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공식적으로 고령친화도시 명칭과 브랜드 로고, 고령친화도시 8대 영역 사용이 가능하며 WHO 주관 국제회의, 워크숍, 공동연구 등에 참여하며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된다.

WHO는 고령친화도시 국가 프로그램 가이드(WHO, 2023)<sup>5)</sup> 를 통해 국가 협력체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고령친화도시 홈페이지에서도 GNAFCC 네트워크 협력체와 관련된 내용

4) <https://extranet.who.int/agefriendlyworld/network-affiliates/>

5) WHO. (2023). National programmes for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A guide.

을 별도 소개하며 국가 차원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WHO는 향후 모든 국가에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시 회원과 같이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네트워크 협력체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다양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WHO의 2023년 가이드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국가 수준의 리더십과 각 지역의 실행력을 연결하는 수직 및 수평적 통합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들은 국가 협력체의 추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국가 차원의 리더십과 전략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고령친화도시 추진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규정하고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조직과 인력,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와 고령친화도시 관련 지식 확산, 연구 및 혁신, 모니터링 및 평가를 주요 과업으로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 GNAFCC 네트워크 협력체 국가 주요 기능

이미 구성되어 움직이고 있는 기존의 국가 단위 GNAFCC 네트워크 협력체는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조직 운영 방식을 보면 국가별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정부 조직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캐나다, 아르헨티나,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며, 보건 부서나 노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직접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등과 같이 정부 산하 기관이 운영하거나, 영국, 미국, 슬로베니아와 같이 민간 비영리조직이 사업을 담당하기도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특색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와 같이 노인 부서 등이 단독으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 국가개발, 교통 등 여러 부서가 공동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산하 조직이나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통해 연구소나 고령친화도시 전담 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미국은 미국은퇴자연맹이라는 민간 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주도하는 다소 독특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GNAFCC 네트워크 협력체 주요 4개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국가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여기에서 몇몇 기능은 일부 국가에서 수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국가의 기능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기능의 목록을 완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각 국가 사례를 통해 살펴본 결과, 국가 기능은 크게 이해 증진, 개별 도시 지원, 협력 체계 구축, 시민 참여, 홍보와 교류 활동 등으로 나누어졌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향후 한국의 제도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이해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개별 도시 지원에 있어서는 고령친화도시 가입과 실행계획 추진 등, 전 과정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재정 지원은 일부 국가에서만 진행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협력 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와 파트너 식별 이후 이들의 활용과 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민 참여 측면에서는 고령자의 참여가 핵심적 기능이지만,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방식의 시민 참여가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홍보와 교류에 있어서도 홍보와 사례 공유 외에 타 도시와 직접 교류하는 방식이 실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 GNAFCC 네트워크 협력체(Network Affiliates) 국가의 주요 기능

분류	국가 제휴 프로그램 주요 기능	미국 AARP	아일랜드 AFI	캐나다 PHAC	아르헨티나 INSSJP-PAMI	스페인 IMSERSO
이해 증진	고령친화 및 AFCC 개념 이해 증진	V	V	V	V	V
	기술 지원 제공(WHO 문서 번역·적용 등)	V	V	V	V	V
	교육 및 지속적인 학습 제공	V	V	V	V	V
개별 도시 지원	GNAFCC 회원 신청 지원	V	V	V	V	V
	지역사회 진단 및 우선순위 설정 지원	V	V	V	-	V
	실행계획 수립 지원	V	V	V	-	V
	실행계획 이행 지원	V	V	V	-	V
	프로젝트 관리 또는 조정	-	V	-	-	V
	재정 확보 지원	-	V	-	-	V
	재정·정보 관리 및 법률 자문 제공	-	-	-	-	V
	영향 측정 및 지속적 개선체계 구축(M&E)	V	V	V	-	V
협력 체계 구축	주요 이해관계자 및 파트너 식별	V	V	V	V	V
	실행팀 구성	V	V	V	-	V
	리더십 발굴 및 개발	V	V	V	-	V
	정치적 지지 확보	V	V	V	-	V
시민 참여	거버넌스 및 자문 체계 구축	V	V	V	-	V
	지역사회 회의 지원	V	V	V	-	V
	공동설계·공동창작 등 협력적 방식 활용	V	V	V	-	V
	고령자의 참여 보장	V	V	V	V	V
홍보 교류	고령친화 활동 대외 홍보	V	V	V	V	V
	성공 사례 및 교훈 공유	V	V	V	V	V
	타 도시·지역과 직접 교류	V	V	V	V	V

\*약어 설명 : AARP(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미국은퇴자연맹), AFI(Age Friendly Ireland, 고령친화 아일랜드 서비스센터), PHAC: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공중보건국), INSSJP-PAMI(Instituto Nacional de Servicios Sociales para Jubilados y Pensionados-Programa de Asistencia Médica Integral, 국립연금복지기관), Imseroso(Institute for Older Persons and Social Service, 노인사회복지연구소)

\*\*내용 출처: WHO(2023) 국가 프로그램 가이드의 내용을 인용하였으며 각 항목별 범주용 분류는 저자가 추가함

GNAFCC 회원 가입을 위한 개별 도시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국가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에 따라 지원의 수준이 상이하다. 단순히 자료를 제공하고 홍보하며 독려하는 수준부터 개별 도시의 회원 가입 준비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 참여 활성화와 실제 성과 도출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인 재정 지원은 일부 국가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원 금액이나 지원 명목에는 물론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재정 지원을 직접 진행하는 국가에는

아일랜드, 스페인,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정 지원 국가는 고령친화도시 국가 자체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앞서 언급한 재정 지원이 있는 5개 국가 중 싱가포르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자체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칠레와 뉴질랜드는 재정 지원이 국가 인증 제도에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에 반하여 아일랜드와 스페인에서의 재정 지원은 지역 네트워크나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국가 인증의 보조 수단이라기보다는 보다 거시적인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지원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은 국가의 재정 지원이 별도로 없지만, 미국 각 도시의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공식 수행 기관인 미국은퇴자연맹에서 자체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WHO GNAFCC 회원 가입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슬로베니아나 캐나다 퀘벡주에서도 이 같은 자체 인증을 통한 GNAFCC 자동 가입 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방식은 국가의 고령사회정책 지향과 각 도시의 정책적 지향을 합일시켜 나가며, 동시에 국제적 흐름에도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사례로서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각국의 운영 방식은 정책 여건에 맞게 다양하게 조정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고령친화도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에도 중요한 참고점이 된다.

## 결론 : 대한민국 고령친화도시 국가 추진 방안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1월 23일 '노인복지법' 제4조의3이 신설되어,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국가의 역할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구체적인 제도 시행은 2026년 1월로 예정되어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현재 GNAFCC 네트워크 국가 협력체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고유의 고령친화도시 제도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GNAFCC 회원 도시가 2013년 서울시의 첫 가입 이후 2025년 기준 총 65개 도시에 이르렀지만, 지금까지 국가 차원에서의 개입이나 지원이 이루어진 바가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국가 차원의 제도화 추진은 환영할만한 변화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미 개별 지자체가 구축해온 고령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우려도 발생한다.

이러한 기대와 우려 속에서 고령친화도시 국가 제도 구축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고령친화도시 사업은 노인복지 정책의 하나가 아니라 미래 사회 대응 정책으로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 환경 개선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국가의 미래 사회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WHO가 추진하는 GNAFCC의 지향과 운영 체계를 존중하고 많은 부분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네트워크 협력체 사례를 참고하여, 일정한 인력과 예산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였으면 한다. 특히 여러 도시의 적극적 참여와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도시 간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국가 제도에 대한 지자체 참여가 활성화된다면 국가의 미래 사회 전략과 지향의 실현은 더욱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고령친화도시 제도가 네트워크 협력체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인천 고령친화 모니터링단의 기록

시민의 눈으로 고령친화도를 점검하고 개선점을 발굴하여  
“노년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함께 만들어가다.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는 매해 고령친화환경 조성 및 정책개발을 위한 상시적 시민의 견수렴기구로서 고령친화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고령친화모니터링단은 WHO에서 제시하는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8대 영역 중 현재 인천시에서 취약한 영역에 대한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발굴하는 활동을 한다.

모니터링단원은 고령사회 정책 및 환경에 관심을 갖고 당사자로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살고 싶은 도시, 시민이 함께 만드는 고령친화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 2025년 고령친화모니터링단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5. 2월 ~ 8월
- 참여인원 : 30명
- 주요내용 : 인천 고령친화 모니터링단 구성, 맞춤형 역량강화교육, 조별 조사활동, 활동결과 공유

#### • 추진프로세스



## 2025년 고령친화모니터링단 추진성과

### MOU체결 및 모니터랑단 위촉

- 일 시 : 2025. 4. 30.(수)
- 장 소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대회의실
- 협약체결 : 총 4개 기관  
 ※ 협약기관 : 미추홀노인복지관,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능대학교 복지케어과, 송현노인복지관
- 발 대 식 : 모니터링단원 30명 위촉

### 역량강화교육&조사활동

- 일 시 : 2025. 4월 ~ 8월
- 주요내용 : 고령친화도시 이해, 조사활동 방법론 등 교육, 조별 조사계획 및 조사 실시

### 우수기관 현장견학

- 일 시 : 2025. 8. 19.(화) 9:30~16:30
- 장 소 : 안산시니어클럽
- 주요내용 : 노인일자리아사업(고령친화적 일자리 제공) 지원사항, 특화사업, 노인 일터 견학, 현장견학 토의 진행 등



### 성과보고회(제안사항)

- 일 시 : 2025. 8. 19.(화) 9:30~16:30
- 장 소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대회의실
- 주요내용 : 조사활동 성과보고(4개조), 해단식 등

※ 조별 주요 제안사항

활동조(조이름)	활동주제	최종제안사항
1조 꽃길인생	고령친화적 노인일자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화되는 현금가치 및 시장흐름에 따른 어르신 정적 보수 보장</li> <li>- 일자리참여 어르신 복지제도 개선 (건강검진비 지원, 휴식시간 보장)</li> <li>- 고령친화적 일자리 제안 : 우리동네 안전지킴이</li> </ul>
2조 동행	인적자원 시니어사회복지사 활용방법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 현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시니어 사회복지사 일자리 제안</li> </ul>
3조 미추홀	시니어에 의한 아이돌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니어 그룹의 아이돌봄 대체인력 활용</li> <li>- 아이돌봄 전담 기구의 설립</li> <li>-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고객 니즈파악, 비용지출의 감당 한도 연구 추진</li> </ul>
4조 성산	초고령대응방안 (노인일자리창출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 심리정서지원 코디네이션 기반 상담사 양성 및 일자리창출 제안</li> </ul>





 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